

서남해안 기업도시 조성사업 활기 띠나

전남도, 구성지구 공유수면 다음달 등기 마무리 담보 대출 자금 확보 ... 삼호지구도 6월 매립 완료

전남도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이하 서남해안 기업도시) 구성지구에 대한 준공검사를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5월말 구성지구의 공유수면에 대한 토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서남해안 기업도시 사업에 순풍이 불 전망이다.

전남도는 25일 "구성지구 2096만㎡ 중 1593만3000㎡에 이르는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공돼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준공검사를 받으면 등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구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준공을 신청한 전남도가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90억원씩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공유수면에 대한 법원 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구성지구는 단지 내 도로 27.5km 토목공사, 성토 576만㎡ 등 기반공사가 진행돼 현재 총공정률이 12.8%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측은 선도사업으로 오는 9월 레저주택인 솔 카운티 2500세대에 대한 조성공사를 착공한다.

총공정률 12.3%인 삼호지구 역시 오는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도



6월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토지화에 나설 계획이다. 삼호지구 866만1000㎡ 중 공유수면은 843만8000㎡에 달한다. 삼호지구에 조성중인 골프장 45홀을 울

해 말까지 준공하고, 골프장과 연계한 전문 교육 골프리조트를 오는 10월 착공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구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담보물건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시장의 신뢰 확보를 통해 투자유치도 활력을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남해안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영암·해남 일대 33.9㎢에 호텔, 마리나, 뉴라이프 시티, 골프장, 친환경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암 삼포지구 4.289㎢, 삼호지구 8.661㎢, 해남 구성지구 20.96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5년 이후 구성지구에 각각 90억원, 삼호지구에 75억원(전남도), 삼호지구에 173억원(전남도), 126억원(전남개발공사) 등 모두 554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北 창군절 원산서 역대 최대 화력훈련

재래식 무기 동원 무력시위 美, 항모·핵잠수함 한반도 파견

북한이 25일 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을 맞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훈련을 벌이며 무력시위를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후 원산 일대에서 대규모 화력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 아래 장사정포 등 300~400문을 투입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군 창건 기념일을 맞아 대내외적으로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접

중적으로 배치한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는 위협적인 무기다.

한미 군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경기 포천 육군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에는 한미 군의 최신에 화력 무기체계와 병력 2000여명이 투입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적 수준의 도발 대신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화력훈련을 함으로써 도발 수위를 조절하고 정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 군 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대형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니미즈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미시간함을 한반도 해역으로 파견하는 등 대북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 추가 도발시 감내 못할 징벌적 조치”

한미일 6자회담 수석 합의

한국·미국·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시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도발) 감행할 경우 북압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 같이 했다." /연합뉴스

김 본부장 외에도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이날 대북압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 같이 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청년정책 점검·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

전남도 청년정책의 밑그림인 '청년발전 시행계획' 추진상황 보고회가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2017년 청년발전 시행계획' 가운데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4개 분야 71개 세부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청년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한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토대로 청년발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지난해 전라남도의 '전국 일자리종합대상(고용노동부)' 수상에 기여했던 청년일자리 시책과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사업' 일환으로 지

역아동센터 아동 학력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부진사업 원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청년정책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남도 청년협의체인 '청년의 목소리' 양영환 대표 등 임원 6명이 참석해 보고 내용을 듣고 'SNS 일자리박람회', '청년농업인 미래 비전 교육' 등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청년의 목소리'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과 사업에 청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협의체로, 9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석기자chadol@kwangju.co.kr



서울시·나주시 우호교류 협약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5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양 자치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성백제·마한문화권 전시유물 및 프로그램 상호교류, 지역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지역 문화·관광 축제 활성화, 체육분야 협력체제 구축, 귀농·귀촌 희망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5개 주요 사업을 전개한다. <나주시 제공>

민주 '통합정부 추진위' 공동위원장 박영선·변재일

한승헌 자문단장·지병문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직속기구인 '통합정부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 후보 측은 지난 23일 후보 직속 기구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통합과 외연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것이다.

추진위는 국민통합 정책이나 통합정부 구성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기

정부에서 이념·지역·세대 등에 갇히지 않고 사회대통합을 이루겠다는 게 문 후보의 구상이다.

추진위는 박영선·변재일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또 추진위 자문단장은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선임됐다. 인권번호사로 유명한 한전 감사원장은 전북 진안출신이다. 이 밖에도 자문단에는 17대 국회의원인 전남대 총장을 지낸 지병문(영광) 전 의원이 포함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쌀 과잉생산 지자체 공공비축 매입량 줄인다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시 적정량 생산 여부를 실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이다.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은 총 35만t이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별로 공공비축

미 물량 배정시 전년도 매입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시책평가 결과 등만 고려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올 초 정한 적정생산량을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물량 배정을 한 뒤 시·도별 비의 적정생산 실적도 반영하기로 했다.

사전에 합의된 적정생산량 이하로 벼를 생산하면, 정부가 기존 배정물량보다 더 많은 쌀을 사들이는 인센티브를 준다. 적정생산량을 넘어 쌀이 과잉생산된 지자체의 경우 배정물량을 줄이는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65

[국가명승 제112호 지정]

화순적벽버스투어

- 운영기간 : 2017.3.25(토)~11.26(일)
- 접수방법 : 인터넷신청 [http://tour.hwason.go.kr]
-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 ☎ 061)379-3504

화순제3경 백이산하늘다리

화순제2경 운주사

화순군 HWASUN COUNTY

천하제일경 화순적벽